

정읍시, 미세먼지 줄이기 팔 걷었다

전기차 보급·경유 차량 폐차 등 '모빌리티' 사업에 112억원 투입 LPG 화물차 신차구입도 지원

정읍시가 친환경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정읍시는 올해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친환경 전기차 보급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모빌리티(Mobility) 사업에 총 112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LPG 화물차 신차구입(55대) 보조금 지원사업과 전기차 보급(승용 100대, 화물 140대)사업, 미세먼지의 주범인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조기 폐차(1738대) 지원사업,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232대) 사업 등이다. 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다.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는 동일해야 하고, 지방세 또는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자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4일부터 18일까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하거나 정읍시청 환경과로 대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정읍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특정 경유 자동차가 대상이다. 생계형, 영업용, 총중량 3.5t 이상, 최근 연식 차량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246만원~587만원까지 지원한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은 Tier-1 이하이 자 2006년 75kW 이하, 2005년 75~130kW, 2004년

이전 제작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삭기가 대상이며 9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인터넷 또는 대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3.5t 이상 5500cc 이하인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중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지원금을 300만원에서 75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 시청 환경과로 문의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미래 기후 위기 대응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간편 정비를 완료해 쾌적해진 순창읍 시가지 야간 전경. <순창군 제공>

순창읍 중앙로 4억원 들여 55곳 간판정비

순창군이 주요 구간에 대한 간판정비를 통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한다. 순창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간판개선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2억4000만원을 포함해 총 4억원을 투입해 순창읍 중앙로 간판을 정비한다. 이번 사업은 순창읍 중앙로 KT순창지점에서 경천교까지 약 300m 구간에 위치한 55개 업소의 간판을 교체하기 위해 진행된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미지 개선에 나선다. 군은 각 업소별 특성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성 있는 간판 디자인 개발을 오는 6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군은 이 사업으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하고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업소별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간판디자인을 발굴하고, 간판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경관을 조성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남원시, 한복문화 지역거점 사업 공모 3년 연속 선정

10월 '한복문화주간' 행사

남원시가 3년 연속 '한복문화 지역거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남원시는 이번 공모사업에서 지역문화 활성화 기여도 및 프로그램 차별성, 지역의 추진의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연속지원 지자체로 선정돼 관련 국비 9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한복진흥센터) 주관으로 지역의 고유 문화관광자원과 한복문화를 연계해 지역만의 특색 있는 한복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로 이어진다. 시는 지난 1월부터 '한복도시 남원, 꽃을 입다'라는 주제로 입고 보는 한복에서 나아가 한복을 매개로 세대와 추억을 이어주는 참신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2022년 남원시 한복문화지역거점 행사는 오는 10월 '한복문화주간'에 맞춰 광한루원과 남원에촌 일원에서 만날 수 있다. 한복문화를 공연으로 만나볼 수 있는 한복시정회, 한복리폼, 옛 추억 한복입고 따라하기 등 다채



지난해 열린 한복문화 주간행사에서 연기자들이 한복의 멋스러움을 알리는 공연을 하고 있다.

로운 문화행사가 예정돼 있다. 또 일상 속 한복문화가 남원시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을과 학교를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시는 앞으로 한복체험관 '화인당'을 중심으로 한 상설프로그램 운영과 미래세대를 위한 한복교

육 등 남원만의 한복문화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한복문화를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꽃 피워, 한복도시 남원과 한복의 멋스러움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군산시, 발달장애 성인 찾아가는 평생교육

'마음 쉽' 사업 추진

군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활동이 제한된 발달장애 성인을 위한 찾아가는 평생교육 '마음 쉽'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2년도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실행조사'와 병행해 재가 보호 중인 발달장애성인 60명을 발굴해 분야별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 장애인 평생교육 복지학회와 연계해 지난 2월 21일부터 총 7차(21시간)에 걸쳐 발달장애성인 파견강사 및 매니저 양성교육을 비대면(Zoom활용)으로 진행 중이다. 전문교육이 끝나면 교육대상자의 가정 또는 별도 장소에서 전문 강사와 매니저를 매칭해 2대1로 원예심리, 음악심리, 미술심리 프로그램 중 수강생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고창군, 농기계 구입비 200만원까지 지원

고창군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원활한 영농작업을 위해 올해 총사업비 13억1000만원을 들여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형농기계 지원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여성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작업의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과 영농의 효율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다. 올해 추진하는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관리기, 경운기, 동력살분무기, 비료살포기 위주로 공급되며, 농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농업인이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5000원 이하의 중소형농기계 제품으로 농기계 가격에 따라 40%를 지원 받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농기에 지원하는 농업용 관리기.

조우삼 고창군 농생명지원과장은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농업인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일손부족 해소 및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익산시, 군복무 지역청년 상해보험 혜택 제공

익산시가 군복무 청년을 위한 상해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인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보험은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군복무 중인 청

년으로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이다.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상해보험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을 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며 군복무 중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함께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군 장병들은 상해·질병 사망·후유장애 최대 5000만원, 상해·질병 입원 시 1일 3만원, 골절·화상 진단금 회당 30만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300만원을 보장받게 된다. 또 수술비 20만원, 외상성절단 진단비 1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50만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청년 장병과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